

무주군, 미래농업 활력 모색

전북대 산학협력단 연구진과 스마트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무주군은 25일 스마트팜 활성화로 무주농업 미래상을 그리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 무주 농업의 활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농경지 감소, 기후 변화로 인한 재배조건 악화 등 농업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농업의 스마트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군은 25일 군수실에서 황인홍 군수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백승우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군 스마트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를 갖고 무주형 스마트팜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청년들에게 안정적 소득원이 보장되는 농업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 새로운 청년 농업경영인을 유입하고, 기존의 개별농가들을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해 노동력이 절감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미래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백승우 교수는 "무주군 지역내 기후·인구·농경지를 대상으로 자료조사와 함께 기존 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해 실제 파악 후 국내의 사례 분석을 통한 생산과 유통, 소비 단계별 사례를 분석, 스마트



무주군은 25일 군수실에서 황인홍 군수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군 스마트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를 갖고 무주형 스마트팜 연구에 착수했다.

팜 5개년 종합계획(2024~2028)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사례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토론회, 연구진 회의를 통해 미래 무주 농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군은 시설원에 생산 중심으로 추진되는 스마트팜을 생산·유통·소비 등 로드맵 및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구축해 나

갈 계획이다.

중앙정부나 전라북도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도 연구용역 결과물에 함께 담을 예정이다.

황인홍 군수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농경지 감소, 기상이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농업에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무주형 스마트팜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스마트한 농업의 설계를 잘 그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장수군, '하늘내 행복나눔터' 준공

천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

장수군은 25일 천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하늘내 행복나눔터'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늘내 행복나눔터가 성공적으로 완성된 것을 축하했다.

천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공간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지역역량 강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



는 사업으로 군은 지난해 계남면, 계북면, 장계면 행복나눔터 조성을 완료하고, 올해 천천면 하늘내 행복나눔터

준공을 완료했다.

하늘내 행복나눔터는 아동돌봄 공간인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작업장, 하늘내 카페, 프로그램실, 다목적실강당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천천면민을 위한 주민활동공간으로 재정비돼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그동안 천천면민들의 활동공간이 부족해 많은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 오늘 준공한 하늘내 행복나눔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길 바란다"며 "하늘내 행복나눔터가 주민편의 서비스공급 거점기능을 충실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24일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향교를 방문해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참여해 건축·

소방·전기·가스 분야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적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적

으로 노후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발굴해 보수·보강 등 조치를 위한 안전예방활동이다.

군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6개 분야, 94개소 시설물을 공무원·유관기관·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내실있게 점검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기자

농촌일손지원센터 운영자 모집

진안군, 5월 3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전담 단체 공모

진안군은 농촌 지역의 당면 문제인 영농기, 파종기, 수확기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5월 3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를 전담할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운영자를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농촌일손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앞서 지난 2022년 12월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3월에는 진안군의회와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돼 운영자 모집 중에 있다.

군은 5월 중 선정심의회를 거쳐 운영자를 최종 모집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에서는 △농촌일손 관리 및 지원 △도시민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알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전반에 대해 수행하게 된다.

진안군은 금년에만 119농가에 39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될 예정이며, 4월 현재 결혼이민자 초청 53명과 MOU체결 지자체 67명이 군에 도입돼 영농철 일손을 보태고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결혼이민자 초청 약 200여명, 5월 중에는 MOU로 100여명이 도입되어 부족한 농촌일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절차는 근로자 1인당 최대 24종의 서류를 필요로 하는 등 손이 많이 가는 업무로 현재 행정에서 서류를 대행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 가입 신청 및 해지, 외국인 등록 신고, 통장 개설 및 해지, 도입에 따른 근로자 개별별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사진 등의 서류와 인력의 도입 및 배치까지도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전문 기관인 군 농촌일손지원센터가 운영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배치 후 사후관리에 따르는 일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행정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 취지에 맞게 필요한 예산을 확보 지원하고 인력 도입을 위한 지자체간 MOU 체결 등 행정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추진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농촌의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단체가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로컬JOB센터 일자리 서포터즈 모집

무주군로컬JOB센터는 구인·구직활동의 활성화와 비경제적 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을 늘리기 위한 일자리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무주군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전북도농상생형 플러스사업에 선정돼 무주군로컬JOB센터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집인원은 총 10명으로, 오는 28일까지다. 일자리 서포터즈는 온·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지가 있고 무주군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포터즈 활동은 인터넷매체, 개인 SNS 등을 통해 지역 내 구인·구직자 발굴 및 무주군로컬JOB센터 홍보는 물론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직자가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활동 실적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도 지원된다.

무주군 산업경제과 김동필 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일자리 서포터즈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 불철 입산물 불법채취 예방·집중 단속

무주군은 4월부터 불철 입산물 불법채취 예방 및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철을 맞아 산나물을 비롯한 산약초 등 입산물 채취시기가 다가오면서 불법행위가 많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서다.

이를 위해 군은 입산물 불법채취 단속반과 산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140명에 이르는 단속반이 관내 등산로와 입도 등에서 사전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또 군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입산물 불법 채취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관광업체 또는 산악회·동호회를 통한 입산물 불법채취 행위, 희귀식물 서식지, 산나물 집단생육지 주변 채취 행위에 대해 오는 5월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군-용담댐수자원공사-지역아동센터, 협약 체결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25일 군수실에서 용담댐수자원공사(지사장 김세진)-지역아동센터(진안마이용지역아동센터, 진안꿈동산지역아동센터) 등 각 기관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관내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프로그램실 및 노후된 주방시설 환경 개선

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을 통해 용담댐 수자원공사는 진안마이용지역아동센터와 진안꿈동산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에 각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진안마이용과 진안꿈동산 지역아동센터의 돌봄환경의 전반적인 기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안=우태만기자

진안군의회, 13곳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나서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가 제283회 임시회 일정으로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첫날인 24일에는 (주)진안박피호두, 딸기 고수 수경재배 시범사업, 황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공사, 부귀 황금리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지, 아토피 치유마을 등 7개소를 살펴보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주요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25일에는 귀농귀촌 청년케어하우스, 안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심심산

골 나물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 총 6곳을 차례로 돌아보며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군의회는 이번 현지확인을 통해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 발생, 안전관리 및 사후실태 등 사업장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업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도지사 및 군수 공약사업인 군립자연휴양림의 경우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우리 군의 대표 휴양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안=우태만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